

‘친일파’라는 사회적 비난에 대한 항변
- 최정희 장편소설 <<녹색의 문>>과 부역의 젠더 정치 -

한경희(한국학중앙연구원)

- 목 차 -

1. 이승만 정권의 반공·반일과 부역의 사회적 낙인화
2. 종속적 위치로 인해 야기된 여성의 부역과 전향
3. 대한민국에 대한 충절의 근거로서 부덕(婦德)
4. 진정한 변절자로서 남성
5. 결론

1. 이승만 정권의 반공·반일과 부역의 사회적 낙인화

이승만과 한민당은 남북분단에 대한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를 치렀으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과 한민당은 반공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단독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남북분단에 대한 회의와 함께 반공주의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지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군대와 경찰과 같은 물리적 폭력 기구에 의지하여 대중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해방 이후 고조된 대중들의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¹⁾ 이승만 정권의 지배 세력은 친일 이력을 지닌 지주 집단을 대표하는 이들로써, 해방 직후 대중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토지개혁과 친일파 처벌을 유예해왔던 장본인들이었다. 그러나 반공주의만으로는 당시 대중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없었기에 체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민족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이승만 정권에서는 ‘반공’과 함께 ‘반일’이 대한민국의 국시로 통용되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반공’과 ‘반일’이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과정은 좌익 부역을 비롯하여 친일 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좌익 부역자 혹은 좌익 부역 혐의를 받았던 이들이 무수히 학살되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좌익 부역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좌익 부역에 대한 법적 처벌은 사회문화적 차원의 인식 변화로도 이어졌다. 좌익 부역자들은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타자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위협적이고 비도덕적인 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²⁾ 마찬가지로 친일 부역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또한 강화되기 시작했다. 반민특위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아무야 해체되고 말았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승만 정권은 좌익 부역과 달리 친일 부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의 의지를

1) 허은, <냉전시대 남북 분단국가의 문화정체성 모색과 ‘냉전 민족주의’, <<한국사학보>> 43, 고려사학회, 2011, 209-238쪽; 김성보, <전후 한국 반공주의의 균열과 전환>,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200-207쪽;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정 정치>, <<사회와 역사>> 95, 한국사회사학회, 2021, 207-209쪽.

2)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371-439쪽.

지니고 있지 않았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정권은 반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경한 민족주의적 입장을 취했으며, 자신들의 ‘반일’에 반대하는 세력을 ‘친일파’로 몰기도 했다.⁴⁾ 이승만 정권은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반일운동을 전개하면서 좌익 부역자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친일 부역자들에게도 사회적 낙인을 부여했다. 당시 대중들에게 친일 여부는 민족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같은 것이었기에,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극우반공체제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일 부역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써 1950년대 이승만 정권 하의 한국 사회에서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과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합법적 국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 어떤 사회에서든 사회구성원을 표준화하는 기제 즉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행동을 기대하면서 수많은 규칙들을 부과하는 지배문화가 있게 마련인데, 좌익 부역 이력과 친일 부역 이력이 한국 사회 지배문화의 기저선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 1950년대 동안 좌익 부역이든 친일 부역이든 혹은 이 둘 모두에 부역했던 이력이든 이를 회고하는 지식인들의 서사가 급증했다는 것이다.⁵⁾ ‘맑스보이’였던 과거 혹은 ‘친일파’였던 과거가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지배문화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정치권력이든 문화권력이든 권력 획득에 있어 불리한 사안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과거를 어떻게든 해명하고 포장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⁶⁾

최정희 또한 1950년대에 자신의 부역 이력을 회고하는 서사를 발표했던 지식인들 중 한 명이었다. 최정희는 일제 말기에 조선문인협회를 비롯한 친일 문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친일 문학을 창작했던 이이다.⁷⁾ 최정희는 다른 문인들이 자신의 친일에 대해 고백하고 반성했던 해방 직후에도 자신의 친일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 남편 김동환과 함께 반민특위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그 결과 김동환이 공민권을 박탈당했을 때에도, “돈만 먹으면 좋다구나 하는 도깨비의 수작”이라고 분개했을 뿐 친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반민특위 활동 및 부역자 처벌의 정당성마저도 부정했던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부터 최정희는 ‘탄금의 서’ 연작으로 일컬어지는 <해당화 피

3) 이승만은 “지난날에 구애되어 앞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반민특위 활동을 저지한 바 있다. 관련 내용으로 강정구, <친일파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한국사회학회, 1993, 285-289쪽을 참조해볼 수 있다.

4) 이승만 정권의 반일운동은 자신들의 정권이 친일파 정권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승만은 195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제의 침략에 대한 비판이나 일제 잔재 청산, 한일회담에서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그리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북한과 본격적으로 교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그 이후부터 ‘반일’을 분명히 표명했다. 그 결과 1955년 5월에서 7월 사이 남한에서 대규모 반일 시위가 전개되었다. 당시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은 한일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악화되어 있던 상태였다.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427-434쪽 참조.)

5)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 김기진, 백철의 문단회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6) 이봉범은 1950년대 문화권력 획득 경쟁에 있어 친일 부역 이력과 좌익 부역 이력이 쟁점이 되었던 대표적 사례로 1954년 예술원 파동을 든다. 박계주는 조연현 등 친일 이력이 있는 이들이 예술원 회원에 당선된 것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극으로 비판하자, 김동리 등은 이에 맞서기 위해 박계주 등 예술원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인들의 좌익 활동을 공론화한다. 이봉범은 1950년대가 한국 사회에서 ‘반일’ 감정이 매우 강한 때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 문인들이 본격적으로 문단에 복귀를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다고 얘기한다. (이봉범, <<한국의 냉전문화사>>, 소명출판, 2023, 191-195쪽.)

7) 친일 문인으로서 최정희의 창작 활동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죽심, <최정희 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3-121쪽을 참조할 수 있다.

는 언덕>(1953), <산가초>(1954), <반주>(1954), <그와 나와 의 대화>(1955), <수난의 장>(1955), <속 수난의 장>(1955), <까마귀>(1955)와 같이 자신의 일제 말기 및 해방 직후의 행적을 정리하는 자전 소설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한국전쟁 이후 반공주의와 함께 민족주의가 헤게모니를 구축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친일에 대한 언급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⁸⁾ 당시 최정희는 남편이 납북되어 부재하고 친일 부역 이력에 조선문학가동맹에 대한 부역 이력까지 더해진 상태에서 문단 변화에 적응하고 있던 중이었다.⁹⁾ 이와 같은 상황이었기에 최정희는 시대적 압력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최정희가 이 시기에 발표한 장편소설 <<녹색의 문>> 또한 자신의 부역 이력에 대한 최정희의 해명을 담고 있는 작품임을 얘기해보고자 한다. <<녹색의 문>>은 <<서울신문>>에 1953년 2월 25일부터 1953년 7월 8일까지 연재한 <녹색의 문>과 <<여원>>에 1955년 10월부터 1956년 10월까지 연재한 <흑의의 여인>을 <속 녹색의 문>으로 개제한 뒤 합본하여 1959년에 출간한 장편소설로서, ‘탄금의 서’ 연작과는 달리 자전 소설로 분류되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일제 말기에서부터 해방 직후까지 좌익 부역자 여성과 친일 부역자 여성이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그동안 우익 민족주의자 남성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얘기하는 소설로, 이와 같은 인물 구도만으로도 이 소설이 최정희 자신의 부역 이력에 대한 회고를 담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본고는 오히려 이 소설이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쓸 것을 표방하는 자전 소설에서는 미처 표현될 수 없는 작가의 날 것 그대로의 생각과 감정이 더 잘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 지점을 구명함으로써 당시 최정희가 자신의 부역 이력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취하고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현재 연구사에서 <<녹색의 문>>은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에 동의하는 체제 협력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동시에 지배 권력의 남성중심성을 전복하는 ‘여성’ 혹은 ‘페미니스트’의 저항적 목소리를 표현한 작품이라는 정반대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김복순은 <<녹색의 문>>이 가부장적 규범에 순응하는 여성 인물을 내세우는 반공주의 서사라고 분석한 바 있으며,¹⁰⁾ 김정숙 또한 이 소설이 반공주의와 민족주의와 같은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서사로서 군데군데 이를 균열하는 ‘여성적’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얘기한 바 있다.¹¹⁾ 한편 황수진은 이 소설이 애국 인사의 신화를 깨뜨리면서 그 실체를 밝히고 이로써 여성 의식을 각성케 하는 소설이라고 얘기하며,¹²⁾ 최정아 또한 이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제국주의·민족주의·공산주의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모두 ‘남성적’인 것임을 의식하면서 그 남성중심성에 저항하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¹³⁾ 본고는 최정희가 자신의 부역 이력 특히 친일 부역 이력을 해명하고 항변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이중

8)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46, 2019, 한국여성문학학회, 24-27쪽.

9) 나보령, <부역작가도, 종군작가도 아닌>,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62-268쪽.

10)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 <<한국근대문학연구>> 9(2), 한국근대문학학회, 2008.

11) 김정숙,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과 <<녹색의 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변화>,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학회, 2009.

12) 황수진, <최정희론 - <<녹색의 문>>과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1.22,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13) 최정아, <최정희의 <녹색의 문>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구 양상>, <<현대소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성이 발생했음을 보임으로써, 이 소설에서 체제순응성과 이에 대한 여성적 저항이 어느 하나가 참이면 다른 어느 하나가 거짓과 같은 이율배반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일 것이다.

한편, 허윤은 <<녹색의 문>>이 민족지사를 위선적인 인물로 그린다가나 식민지기를 해방 전보다 행복했던 시절로 묘사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반공’과 ‘반일’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식민지 시기를 서사화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최정희가 “국민적 망각 속에서 살아남은 개인성의 지점”에 근거하여 이 소설을 창작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이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분석한 바 있다.¹⁴⁾ 본고는 이 연구가 이 소설이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와 맺는 관계를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과 차별되나, 분석의 준거점이 되는 ‘개인성’ 및 ‘비국민’, ‘경계인’ 등이 어떠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 것인지 명료하게 밝히지 않아 의도치 않게 이 소설을 국가의 공식 기억이 가하는 민족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억압에 저항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소설로 위치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승만 정권의 ‘반공’과 ‘반일’에 대한 최정희의 ‘비국민’, ‘경계인’, ‘개인’으로서의 거부감이 어떠한 이유에서 나온 것이며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논함으로써 이 소설의 정치적 의의를 재평가할 것이다.

2. 종속적 위치로 인해 야기된 여성의 부역과 전향

최정희는 <<녹색의 문>>이 일간지 및 월간지에 연재되는 소설이니만큼 처음부터 대중 독자를 강하게 의식하고 소설 창작에 임하며, 소설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유머러스한 필치로 여성 인물들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의 연애와 결혼은 다만 대중 독자들을 위한 흥밋거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민족국가뿐만 아니라 역사상 대부분의 정치체는 남성들 사이의 연대에 기초하여 조직되었다. 그리고 여성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 남성 개인에게 종속됨으로써 정치체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왔다.¹⁵⁾ 이로 인해 여성에게 있어 특정 남성 개인과 성적 관계를 맺고 결혼하여 가족을 구성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떠한 정치체에 소속될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여성에게 있어 연애와 결혼은 다만 ‘사적’인 일에 그치지 않으며 그 자체가 지극히 ‘공적’인 일이다. 최정희가 <<녹색의 문>>에서 연애와 결혼을 소재로 가져온 것은 바로 여성과 정치체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녹색의 문>>은 유보화와 도영혜라는 두 여성과 김영서라는 한 남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유보화와 도영혜는 일제 시기 동안 각각 친일파의 아내 그리고 공산주의자의 내연녀로 살아온 이들이다. 이 소설에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주도해서 친일 활동이나 좌익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유보화의 경우 친일파와 같은 정치 행위와 아예 무관하게 다만 가사나 육아, 직장생활 등 가정에만 충실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남성을 매개로 하고 있더라도 어찌되었든 정치 상황과 결부되어 그로부터 이득이든 손해든 보고 있다는 점에

14) 허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 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15) 케릴 페이트먼은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사회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근대국가 또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근대가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근대국가에서 시민적 자유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러나 근대 시민사회에서 결혼과 가족과 같은 제도가 공적 영역과 무관한 사적 영역으로 ‘자연화’되고 있다는 데서 확연히 나타나듯, 이와 같은 성적 지배는 마치 사회적 계약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위장되어 그 예측성이 은폐되고 있다. (케릴 페이트먼, 이충훈·유영근 옮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2001, 16-38쪽.)

서, 이 여성 인물들 또한 당대의 정치적 주체들이다. 최정희는 가부장제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치체에서는 여성이 남성 시민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정치 권리를 행사한다는 점을 의식하고 정치적 주체로서 여성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현한다. 이들의 애인인 김영서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 하에서 지배 권력에 편입된 우익 민족주의자로 등장한다.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한 학병 출신으로 설명되고 있듯이, 김영서라는 인물은 이승만 정권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호명되었던 우익 민족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생애 경로를 그대로 반영하여 만들어진 인물이다.¹⁶⁾ 김영서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로 등장하고 있다는 데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최정희는 우익 민족주의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한다고 본다. 최정희는 이승만 정권 하에서 부역자로 분류되는 이 여성들과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민족국가 사이의 관계를 김영서와 두 여성 인물 사이의 애정 갈등을 통해 다룬다.

최정희는 두 부역자 여성 인물들이 일제 시대에 김영서를 열렬하게 사랑했음을 얘기하는 것으로써 소설을 시작한다. 조선어 교육이 금지되었던 1930년대 말 10대 후반의 여학생이었던 유보화와 도영혜는 함께 하숙을 하고 있던 절친한 선후배 사이였다. 유보화와 도영혜는 여학교를 졸업할 즈음 즉 성인의 문턱에 들어설 즈음부터 남성에 대한 성적 욕망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유보화와 도영혜 두 여성 인물에게 있어 사랑이란 만성적인 소외감과 공허감, 라캉의 용어를 빌리면 ‘존재 내 결여’를 극복하여 보다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고양시키는 일과도 같다. 이들은 아름다움이라는 지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타인과의 결합을 통해 자신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결핍감을 채우고 존재의 완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섬세한 감수성의 소유자들이다. 여학교 시절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결핍감을 다른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 채워왔다. 그러나 성인이 될 즈음부터는 욕망의 대상이 남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원적인 결핍감을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통해 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 시작한다. <<녹색의 문>>에서 이와 같은 여학생들의 변화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전제된다. 최정희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부장제의 이성애중심주의에 적응해가는 것을 곧 성숙이라고 전제하고 <<녹색의 문>>의 서사를 전개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이 여성 인물들이 성애의 대상으로 선택한 남성이 바로 김영서였음을 보여준다.

“짹짹할 때 그 엄숙한 얼굴, 그 태연한 태도, 아아 난 잊을 수 없다. 그러구 묵묵히 끌려가는 그 뒷모양…… 다 죽은 줄만 알구 있던 조선 사람 중에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 보화야 우리두 김영서씨처럼 싸우자, 죽더라도 싸우자. 우리에게서 언어(言語)까지 빼앗아 버리려는 악독한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야 한다. 우릴 일본 여성으로 만들려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보화야 알지? 저 알지?”

도영혜는 흥분해서 몸을 떨면서 연설조로 말했다. 언제 그는 그렇게 그런 힘든 말을 배워 알았을까 싶도록 달변이었다.

그러나 역시 유보화는 그런 생각을 오래 하고 있을 마음이 없었다.

도영혜의 말을 듣고 있는 사이에 그는 도영혜를 미워하던 생각이 사라지고 가슴에 몽클 하는 무

16) 김건우는 195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이끌어 나갔던 주역들이 일제 시대에 고등교육을 받은 이삼십대 청장년들로서, 대체로 일제 말기에 학병으로 일본군에 끌려갔던 경험을 공통적으로 했던 세대였음을 밝힌 바 있다. 학병 세대의 한 예로 <<사상계>>를 창간한 장준하를 들 수 있다. 장준하는 <<녹색의 문>>의 김영서와 비슷하게 일본 유학 중 학병에 징집되었다. 그러나 곧 탈출해 충칭 임시정부에 들어가 광복군으로 참전했으며, 해방 후 김구의 비서 자격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귀국했다.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12-36쪽.)

엇이 와서 가로 놓이는 것을 깨달았다.

“언니 저두 싸우겠어요. 죽음을 각오하구 싸우겠어요. 죽는 것 같은 건 무섭지두 않아요.”
하고 또박 또박 말했다.¹⁷⁾

“그놈들이 왜 찾는대요?”

“조선서 요시찰인(要視察人)으루 통보(通報)해 오기두 했으려니와 가만 있잖으니까 그러는 거겠지요.”

유보화는 또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몇 차례씩이나 끌려가 보았건만 그래도 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 같은 것을 돌보지 않는 김영서가 도영혜 말이 아니더라도 위대하고 훌륭한 것 같이 여겨졌다.

그는 정성되고 살뜰한 마음으로 밥을 지었다. 아직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마음이었다. 밥은 곧 되었다.¹⁸⁾

김영서는 그녀들과 같은 하숙집에 있던 이이다. 그는 자신이 민족해방이라는 대의에 헌신하고 있다는 자의식으로 항상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유보화와 도영혜는 김영서의 바로 이와 같은 점에 매력을 느껴 사랑에 빠졌다. 이들에게 김영서라는 남성 인물은, 그가 언제나 감정적으로 들떠 있는 인물이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듯, 민족주의라는 신념을 통해 자신을 보다 완전한 존재로 고양시키고 있는 인물로 비춰진다. 그렇기에 “하늘에 문 달린 집 보리밭처럼 푸른 문(門) 안에 살고 있는 어느 나라 왕자(王子)”를 꿈꾸는 유보화 같은 여성 인물은 김영서를 사랑해 마지않는다. 김영서는 살벌한 일제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 사상을 굳게 견지하며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이로, 유보화와 도영혜는 그의 저항이 세속적이고 속물적이며 일상적인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이를 용기 있게 거부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하며, 그를 사랑함으로써 자신 또한 보다 완전한 존재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도영혜가 김영서를 모방하여 주도한 학내 시위가 “어느 혁명가나 사상가의 뿌리 박은 견고(堅固)한 사상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루 아침에 흥분과 감상(感傷)에서 움직이게 된 소녀의 행동”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데서도 잘 나타나듯, 이 점에서 민족주의자 김영서에 대한 두 여성 인물들의 사랑은 낭만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이 여성 인물들에게 있어 민족주의에 기반한 탈식민적 저항은 통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고자 하는 현실 집단 간의 정치 투쟁으로 이해되기보다, 낭만주의적으로 미학화되어 이해되는 것이다.

탈식민적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여성 인물들의 이와 같은 이해는 최정희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정희는 국가와 민족과 같은 ‘대의’의 추구가 지금 여기의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높은 이상의 추구와 같은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기에 최정희는 탈식민적 저항운동을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국가와 민족과 같은 ‘대의’를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완전한 존재로 고양시키고자 하는 낭만주의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랑’의 추구와도 구별되지 않기에, 생물학적으로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가 가장 왕성할 때인 젊은 청년기 한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녹색의 문>>에서 “이긴다는 것은 젊은이의 사명”과 같은 표현 등을 통해 김영서의 젊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정희는 탈식민적 민족운동이 낭만주의적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미술과 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17) 최정희, <<녹색의 문>>, 푸른사상사, 2026, 29쪽.

18) 위의 책, 105쪽.

행위와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래서 김영서는 정치적 저항 의식을 가진 만큼 철학, 문학, 미술, 음악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로 등장한다. 정치 참여란 지금 여기에 없는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 활동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활동과도 호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정희는 <<녹색의 문>>에서 저항적인 사회운동이 미술이나 문학과 같은 예술보다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더욱 ‘남성적’이라고 본다. 이는 유보화가 예술가인 서남령 선생을 사랑했다가 민족주의자인 김영서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데서 확인해볼 수 있다. “하늘빛처럼 서늘한 눈”을 지닌 서남령 선생은 화가로서 세속적인 욕망을 전혀 추구하지 않으며 학교 밖 세상 일에는 최소한도로만 개입하는 이이다. 유보화는 바로 이러한 삶의 태도에서 세속적·속물적·일상적 현실을 거부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하여 서남령 선생을 사랑한다. 그러나 유보화는 어느 날 김영서가 자신의 어깨를 힘주어 꼭 눌러 앉힌 일을 계기로 서남령 선생을 “골샌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똑같이 높은 이상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예술은 저항적인 사회운동과 달리 자신의 이상을 현실 사회에 실현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력하다. 김영서는 일제의 탄압 위협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대한 저항을 지속하는 이이다. 김영서가 일제의 탄압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영서의 내부에는 그 무서운 일제도 통제할 수 없는 커다란 ‘힘’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부장제의 이성애중심주의에 적응하면서 지배-종속이라는 이성애 각본을 내면화한 이들은 타인 및 외부 환경을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제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를 ‘남성’이라고 여긴다. 이로 인해 유보화는 서남령 선생과 김영서를 비교하며 김영서야말로 진정한 ‘남성’이라고 생각하며, 서남령 선생에 대한 사랑을 접고 김영서를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정희는 이 여성 인물들이 김영서와 헤어지고 194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각각 친일파의 아내 및 공산주의자의 내연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김영서에 대한 사랑을 변함 없이 품고 살아갔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들이 마치 정치적으로 변절한 부역자들로 보일지라도 사실 그 변절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최정희는 이를 위해 우선 이들이 친일파 남성 및 공산주의자 남성과 만나 결혼하거나 동거 생활을 했던 일이 결코 이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도영혜는 김영서가 동경으로 유학을 가자 자기도 김영서를 좇아 동경으로 유학을 갔다. 그러나 김영서는 도영혜를 도무지 진지하게 상대해주려고 하지 않았다. 도영혜는 김영서로 인해 상사병까지 앓다가 어느 날 밤 김영서의 자취방으로 몰래 숨어들어갔다. 김영서는 자신의 방에 숨어 들어온 도영혜를 물리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도영혜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김영서는 도영혜와 결혼까지 할 마음은 없었기에 도영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도영혜를 ‘개물 듯’ 내쫓았다. 도영혜는 임신까지 했지만 끝내 김영서와 결혼할 수 없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관계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권은 남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이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한 그 남성과의 관계를 자기 뜻대로 이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¹⁹⁾

김영서를 ‘선택’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영혜는 친일파 남성도 공산주의자 남성도 자기 뜻대로 ‘거부’할 수가 없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19) 본고에서 사용하는 가부장제라는 개념은 여성의 몸에 대한 남성의 접근권, 통제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가부장제에 대한 정의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 개발한 것으로, 급진주의 페미니즘에서는 모성(재생산), 인간의 성 활동(섹슈얼리티) 두 부분에서 여성의 몸이 남성(가족, 국가 등 남성 공동체)의 소유물이며 이것이 여성 억압의 본질(주요 모순)임을 주장한다. (정희진,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권김현영 외,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90쪽 참조.)

관습적으로든 남성과 동등한 권리 주체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려면 여성은 아버지든 남편이든 아들이든 반드시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해줄 남성 가부장이 있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하고 의존적인 ‘여성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영혜는 ‘미혼모’까지 되었기에 더욱 더 자신을 보호해줄 남성 가부장이 필요해진 상황이었지만, ‘미혼모’라는 불리점이 있기 때문에 남성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도영혜는 어떤 남자인지 ‘미혼모’인 자신을 받아주기만 한다면 모두 관계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과 남성 흥찬과 결혼했던 것도, 그와 이혼한 후에는 재력가이자 권력자인 공산주의자 남성 성완수와 동거 생활을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이처럼 최정희는 도영혜가 부역을 하게 된 이유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었음을 얘기하면서, 도영혜의 정치적 변절이 결코 자의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다.

유보화가 친일과 남성의 아내로 살아가게 된 사연 또한 도영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김영서는 도영혜를 버리고 연애의 대상으로 유보화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둘의 연애는 결국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는 유보화의 탓이 아니었다. 김영서가 동경에서 학병 문제 때문에 거취가 불안정하던 1943년 말 유보화는 아버지의 상을 치르기 위해 조선에 들어가 있었다.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도중 유보화는 이성배라는 남성에게 겁탈당했다. 그리고 그 일로 임신까지 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그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배는 김영서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외모도 별로일 뿐만 아니라 교양 수준 역시 저열하다. 그의 저열함은 그가 정치 의식이 없다는 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국가와 민족과 같은 ‘대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오직 자기 일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생각하는 소시민적 인물이다. 이와 같은 그의 특성은 그가 지주인 부모님과 친일과 친척들이 시키는 대로 면서기로 일하면서 징용 업무를 봤다는 데서 가장 확연히 드러난다. 이성배가 항상 ‘여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듯, 유보화에게 그런 그는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영혜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근본적으로 똑같은 이유로, 유보화 또한 그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성윤리가 남성중심적으로 구축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 제도 바깥에서 성관계를 가져 아이까지 낳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강간’의 결과라고 할지라도,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기대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보화는 차라리 죽으려고 했다. 그러나 “죽어지지 않는 몸뚱이” 때문에 이성배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최정희는 유보화와 도영혜라는 두 부역자 여성 인물이 대한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와 반공주의를 배신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임을 얘기한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아 성폭력에 대한 개념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조’ 이데올로기마저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적 접근 자체를 통제할 수 없어 원하지 않는 남성과 성적 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마저 발생한다. 그래서 유보화는 이런 여성으로서의 ‘운명’을 예감하고 꽃에 들러붙는 나비들을 보며 “선생님 도대체 남학생이란 없었음 좋겠어요. 성가시구 귀찮아서요. 막 잡아서 죽여 버렸음 좋겠어요.”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과 맺는 성적 관계를 매개로 정치체에 대한 소속권을 얻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그대로 여성이 정치체에 대한 소속권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이어진다. 가

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이 종속될 남성을 ‘선택’할 수가 없으며, 이는 그대로 자신이 소속될 정치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최정희는 유보화와 도영혜와 같은 여성 인물들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부역자로 살게 된 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최정희의 주장은 이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시혜와 동정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주체성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제약되는지를 직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책임 정도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온당한 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희의 주장대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종속적 위치 그 자체가 부역 책임의 면제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가하구 지내는 사이에야 일을 했지. 해방이 되면서 나는 사람이 왜 산다는 걸 알 만큼 일을 했어. 해방 전까지는 성가가 내게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구 있 어서 내가 전연 몰랐지. 그러다가 해방이 되니까 성가는 나한테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 주었고 내게도 일을 맡겨 주었어. 그러나 주위의 탄압이 심해지자 그는 다시 나를 경원했어. 결국 그 자는 나 몰래 자취를 감추었어.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도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남자들이란 뱃 가죽이 열 겹두 더 돼. 그 뱃속은 도무지 알 수 없어. 여자들이야 어디 그래. 제가 좋은 사람에 겐 뱃속에 있는 걸 다 뽑아 놓잖아. 그것 뿐인가. **여자들은 제 좋은 남자의 주의 사상을 말짱 따라가지.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사상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야. 민주주의면 따라서 민주주의자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 김영서하구 살게 됐더라면 공산주의자가 되진 않았을 거야.**”

도영혜는 한숨을 휘이 쉬었다.

“언니. 김영서하구 다시 결합될 생각은 없으세요?”

한숨 뒤의 유보화가 물어본 말이다.

“뭐 김영서가 그럴 의사가 있다더냐?”

도영혜가 또 별떡 일어나 앉는 것이었다.²⁰⁾

앞서 요약적으로 언급했듯이, 도영혜는 김영서에게 버림받은 이후 친일파 남성 홍찬구와도 결혼 생활을 했으며, 그와 이혼한 이후에는 공산주의자 남성 성완구와 동거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도영혜는 남편을 따라 친일에 동조하기도 했으며 내연남을 따라 공산주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위의 인용에서 도영혜는 “여자들은 제 좋은 남자의 주의 사상을 말짱 따라가지. 제가 좋아하는 남자의 사상이 공산주의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면 따라서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란 곧 남성에게 육체적으로·정신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사상 또한 그러한 성적 종속의 결과로 가지게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이유로 도영혜는 “만약 김영서하구 살게 됐더라면 공산주의자가 되진 않았을 거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상적 전향과 그에 따른 부역 활동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여성의 종속적 위치로 돌린다. 부역 이력에 대한 이와 같은 해명 방식은 <<강물의 끝>>에서 최정희가 자신의 친일에 대해 “남편의 일에 협조하는 의미 이외에 다른 뜻은 없었”다는 언급을 상기시키기도 한다.²¹⁾ 최정희는 여성이란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이기에 정치적 사상 또한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성은 부역 책임의 주체 또한 아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20) 최정희, 앞의 책, 374-375쪽.

21) 서영은, <<최정희 전기소설 · 강물의 끝>>, 문학사상사, 1984, 83쪽.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모순이 있다. 이 주장은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남성에게 보호를 받으면 여성은 그 남성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성에게 대한 ‘종속’이 남성에 대한 ‘동일시’의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동일시하는 일이 더욱 쉽게 일어나기는 한다. 그러나 종속적 위치 그 자체가 피지배자로 하여금 지배 권력을 가진 자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동일시를 포함하여 피지배자가 지배 권력을 동일시하게 되는 것은 대개 지배하는 자의 위치로 가고 싶다는 상승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²²⁾ 이 점에서 아무리 자신에 대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남성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남성의 사상을 추종하여 전향하고 부역을 한 책임은 여성 자신에게 있다. 왜냐하면 남성과의 동일시는 여성 자신의 욕망에 의한 것이었지 종속적 위치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부역에 대한 책임 자체는 남성 혹은 가부장제가 대신 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대한민국에 대한 충절의 증거로서 부덕(婦德)

지배 권력은 자신들을 아름다운 것, 선한 것, 정의로운 것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힘, 상징적 힘, 언어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통해 그 지배 권력의 유지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열등한 것, 추한 것, 비속한 것으로 구성하며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한다. 지배 권력의 담론 정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이 부재할 때 피지배자는 지배 권력의 선전대로 지배 권력이 곧 여러 좋은 가치들을 담지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지배 권력이 설정한 문화적 규범들을 내면화한다. 지배 권력이 피지배자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이와 같은 기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배 권력이 설정한 문화적 규범들을 내면화한 피지배자들은 지배문화에서 일탈한 삶이란 타인에 의해 경멸당하고 무시당해 마땅한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여긴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는 길이 곧 지배문화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지배문화에 부합하는 삶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지배 권력을 가진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자신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서 지배 권력을 이상화하고 동일시하면서 지배 권력의 위치로 상승하고자 한다. <<녹색의 문>>에서 김영서라는 인물이 단순히 대한민국의 지배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 도덕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설정되고 있다는 것은, 최정희에게 있어 지배 권력이란 그 자체만으로도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권위를 지니며 피지배자의 동일시 대상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³⁾

지배 권력 및 지배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도덕성 혹은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는 곧 사회적 인정 정도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22) 사라 아베드는 동일시란 상대를 점점 닮아가면서 상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이때 주체가 사랑하는 상대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미래 시점에 이루어진다. 동일시는 주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대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망이며, 그러한 점에서 동일시는 주체의 공간을 확장한다. (사라 아베드, 시우 옮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275-276쪽.)

23) 최정희의 친일문학을 연구하는 논자들은 최정희가 지배 권력에 대해 취하는 이와 같은 태도가 친일 활동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지적해왔다. 이상경은 이를 “항상 당대의 권위 있는 진술에 기대”고 자 하는 “안이함”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205쪽.) 서영인은 이를 “결핍된 가부장에 대한 욕망” 및 “안정된 지배구조의 동일성에 편입하려는 욕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서영인,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 - 최정희 친일문학의 내적 동인 연구>, <<현대소설연구>> 25, 2005, 227쪽.)

점에서 이승만 정권이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를 헤게모니화하면서 부역 이력에 사회적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은 최정희에게 있어 더 이상 자존감을 예전처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 좌익 부역자 및 친일 부역자는 지조도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충성의 대상을 바꾸는 변절자들이라고 비난받고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란 오직 지배문화에 의해 규정된 정상성을 갖추어야만 확보될 수 있다고 믿는 이에게 있어서,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위신이 있는지가 곧 자신의 인간적 가치 정도를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부역자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은 곧 자신이 인간 이하의 수치스러운 존재로 ‘격하’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최정희는 자신이 부역을 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대신 최정희는 <<녹색의 문>>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성의 부역이 불가피한 이유로 일어난 것임을 얘기하며, 다음과 같이 여성 부역자들이 항상 김영서를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갔음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이들이 ‘변절’한 적이 없음을 얘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녹색의 문>>에서 이와 같은 최정희의 시도는 대체로 친일 부역자 유보화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²⁴⁾ 최정희는 좌익 부역 여성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차치하고 친일 부역자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인만이라도 완화하고자 한다. 당시 최정희에게 문제가 되었던 이력이 친일 부역 이력이었으며, 이승만 정권 하에서 친일 부역 이력은 좌익 부역 이력과 달리 조용히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⁵⁾ 최정희는 우선 유보화가 해방 이전 김영서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에는 물론이고, 김영서와 헤어지고 일제 말기에 이성배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김영서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갔음을 보여준다.

식장엔 축하객이 예상 이외로 많았다. 도영혜의 공로라고 유보화는 새삼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 축하객이 많아 어머니가 기뻐하신다고 도영혜는 며칠 전부터 말했던 것이다. 웨딩 마취에 따라 장내에 발을 들여 놓으니 여기 저기서 까만 옷 맵시에 대해서 말들을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색시가 왜 까맣게 입었을까? 그렇게 입으니까 참 예쁘구나.”

“이체가 있군. 저게 전시 체젠지 모르지.”

하고…….

주례 앞에 이르기 전에 가족석에 앉은 어머니, 승국이, 도영혜가 눈에 훌쩍 띄었다. 어머니는 외로와 보이고 불쌍해 보였다.

24) 이 점에서 유보화라는 여성 인물은 최정희가 친일 부역자라는 사회적 낙인을 부당하게 여기면서 ‘진정한’ 자기 존재를 증명하겠다는 인정 욕망에서 빚어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유보화가 사회적 인정 욕망으로부터 빚어진 인물이라는 것은 소설 속에서 유보화가 유독 ‘거울’을 본다거나 ‘자화상’을 그리는 등 자신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인물이라는 데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녹색의 문>>에서 유보화는 자신의 현재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자주 자기 얼굴을 확인한다. 그러나 유보화가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행위는 김영서와의 연애처럼 타인에게 선망받을 만한 일을 했거나 남의 애인 뺏기나 친일파와의 결혼처럼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에만 행해지곤 한다. 이 점에서, 유보화가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행위는 자기 내면을 반성하는 행위라기 보다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확인하는 행위에 가깝다.

25) “근래에 와서 친일파 문제로 하여 누가 친일파며 누가 아닌가 하는 것이 민간에서 혼동된 관계가 있으므로 내가 다시 설명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왜정시대에 무엇을 하던 것을 가지고 친일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 일본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한 사적(史蹟)이 있을지라도 지금 와서는 그 일을 탕척(蕩滌)받을 만한 일이 있어 증명받을 만한면 전에 일은 다 불문하고 애국하는 국민으로 인정하고 대우해줄 것이다.”(<<동아일보>>, 1954년 4월 8일자. 서중석, 앞의 책, 432쪽에서 재인용.)

눈물이 콕콕 내려오는 것을 입술을 깨물어 참으려는데 승국이가,
“아줌마 운다.”

하고 손가락질을 했다. 도영혜가 눈을 흘겼다. 어머니는 턱도 모르시고 들릴락 말락 혀를 두 번 차
섰다. 어머니는 아버지 생각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지 모른다.

주례 앞에 서서 유보화는 어머니가 뒤에서 자기의 달라진 허리에 눈치 채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
도 하고 혹시 어머니는 새까만 옷이요, 게다가 뺏뺏한 것이므로 몸의 이상을 잘 모르실지도 모른
다는 생각도 했다. 김영서는 이런 것을 염려해서 꿈길에 나타나 새까만 옷을 입으라고 일러 준 것
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주례가 이성배에게 뭐라고 뭐라고 먼저 묻고 나서 유보화에게 또 물었다. 유보화는 이 서약에
대답할 때마다 자신 없는 대꾸를 했다.

“남편으로 알고 섬기겠냐?”

는 말엔 더구나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²⁶⁾

유보화는 이성배와 결혼식을 하면서부터 검은 옷만을 입고 살았다. 이성배와의 결혼식 전
날 김영서는 유보화의 꿈에 나타나 앞으로 검은 옷만을 입고 살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지
키는 것으로써 김영서에 대한 사랑을 간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유보화에게 있어 김영서와
의 결혼에 실패했다는 것은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고결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곧 세속적·
속물적·일상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보화는 친
일파 이성배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다. 이성배와 결혼하여 사는 삶이란
자신 또한 이성배라는 인물의 수준만큼 저열한 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은 유보화가 황국 신민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일제 말기 전시 체제에 동조하
느라 일부러 검박하게 검은 옷만을 입고 다닌다고 오해했지만, 사실 유보화는 김영서를 애
도하기 위해 검은 옷만을 입고 다녔던 것이었다. 오히려 유보화는 “오늘날 내 신세를 이 지
경으로 처참히 만들어 준 것”은 “일본 제국주의”라고 양심을 품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유
보화의 모습을 통해 최정희는 현재 친일 부역자들이 자기 일신의 이득을 위해서 나라를 팔
아먹은 변절자라고 이들이라는 비난에 반박하고자 한다.

최정희는 유보화가 가부장적 규범 그 자체에도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통해 김영서에 대한
지조 및 대한민국에 대한 충절을 지켜왔음을 증명하고자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가부장제
를 기반으로 구성된 정치체라는 점에서, 여성에게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성을 다한다
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제에 순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최정희는 유보화가 얼
마나 훌륭한 부덕을 갖춘 인물인지를 강조함으로써 친일 부역자 여성 또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한 충절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유보화는 이성배와 결혼한 이후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시골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기를 자처했다. 그리고 시골 시댁에서 집안의 머슴들보
다 더 부지런하게 일하는 등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했다. 또한 해방 직후 남편이
죽었을 때에는 아무리 싫은 남편이었지만 그를 애도하며 평생 재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
기도 했다. 유보화는 이성배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가부장적 규범 그 자체에는 충실했다. 유
보화가 가부장적 규범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유보화의 마음 속에 김영서가 있었기 때문
이었다. 유보화에게 김영서는 남성 중의 남성 즉 ‘진짜’ 남성이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보화
에게 있어 남성에 대한 사랑은 높은 이상에 대한 추구와도 같은데, 이때 높은 이상에 대한
추구는 지배문화의 규범 그 자체를 도덕이라고 여기며 추구하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다. 따
라서 유보화는 이성배라는 한 남성 개인을 경멸하면서도 김영서라는 남성을 사랑하는 한 가

26) 최정희, 앞의 책, 251-252쪽.

부장적 규범 그 자체에는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녹색의 문>>에서 유보화의 부덕은 특히 좌익 부역자인 도영혜와의 비교를 통해 강조된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좌익 부역이 친일 부역보다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문제적인 것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에 기대어, 최정희는 좌익 부역자 여성 도영혜와 친일 부역자 여성 유보화를 비교·대조하는 방식을 통해 친일 부역자 여성에게 부여된 낙인을 완화하고자 한다.

“애 보화야 그러지 말아. 너까지 그런 얼굴로 가혹하게 굴면 도영혜는 어찌란 말이나. 애랑 낭구두 결혼 못하는데 도영혜의 슬픔이 있는 거야. 도영혜의 비극의 막은 그 때부터 열린 거야. 결혼만 했던 도영혜두 현숙한 여편네가 됐을 거다. 많은 남잘 거치지 않구두 살았을 거다. 술을 마시지 않구두 잠을 잘 수 있었을 거다. 남자 없는 밤두 아무 소리 없이 잠을 잘 수 있었을 거다. 저 우리 애기 모양으루 저렇게 고요히 곱게 잠을 잘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잊혀지는지 모르겠다. 술을 마셔두 안 잊혀지구 많은 남잘 거쳐서두 안 잊혀지구 아 참 싫구나. 모두 또렷하기만 하구나. 애 보화야 내가 널 반가워하는 것두 김영서가 안 잊혀지는 까닭이다. 김영서의 애인이기 때문이다. 김영서가 널 사랑하구 네가 김영설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것 때때 네가 또 밉구나. 싫구나. 묘한 감정이지? 도영혜가 김영서의 아일 낳기 때때 더 좋고 살뜰하다는 네 말과 같이 나두 김영서의 애인인 네가 더 좋구 살뜰하면서도 또 밉구 싫단다. 너두 이 복잡한 심리, 미묘한 감정을 지금 체험하구 있을 거야. ... ”27)

좌익 부역자인 도영혜 또한 친일 부역자인 유보화와 마찬가지로 부역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김영서를 마음에 품고 살았다. 그러나 도영혜는 김영서에게 버림받고 ‘미혼모’로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김영서에 대한 원망과 분노 또한 품고 살았다. 그런데 위의 인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김영서에 대한 도영혜의 원망은 여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부장적 규범을 경시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김영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곧 남성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는다는 것이며 또한 가부장적 사회 질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는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배문화의 규범은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이기 때문에, 가부장적 규범에 대한 경시는 곧 인간으로서의 품위 및 가치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도영혜는 ‘미혼모’, ‘이혼녀’, ‘내연녀’, ‘첩’과 같이 결혼 제도에서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이나, 저속하고 천박한 인품을 가진 이로 등장한다. 도영혜는 술을 좋아하고 성적 쾌락에 탐닉할 뿐만 아니라, 김영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승국에게도 애정을 쏟지 않는다. 도영혜는 승국이만 임신하지 않았다면 꼭 김영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피해의식에 젖어 승국을 방치한다. 도영혜가 가부장제의 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충절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도영혜는 김영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지 못한 만큼 친일파 남성과 공산주의자 남성들을 만나는 등 가부장제의 첫 번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일부종사’를 하지 못하고 ‘변절’했다. 도영혜의 이와 같은 행태는 유보화가 김영서에 대한 지조를 지키면서 ‘일부종사’를 이뤄낸 것과 대조된다.

최정희는 유보화가 해방 직후에도 부덕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음을 보여준다. <<녹색의 문>>에서 해방 직후는 유보화의 남편 이성배가 마을 청년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병을 얻어 죽고 대신 우익 민족주의자 김영서가 화려하게 귀환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27) 위의 책, 194쪽.

해방 직후 친일 부역자들의 상황은 유보화가 이미 한번 결혼한 몸이기에 김영서를 만나고 싶어도 찾아갈 수 없어 ‘속’이 터질 듯 답답해하는 상황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최정희는 이 시기야말로 유보화의 부덕이 돋보였던 시기였다고 얘기한다. 최정희는 해방 직후 친일 부역자들이 ‘자숙’하고 있던 상황을 선불리 경거망동하지 않는 유보화의 침착함으로 바꾸고, 이 또한 유보화의 부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유보화를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당했던 사회적 비난으로부터 분리해낸다.

도영혜는 성완수가 나간 뒤에도 유보화에게 성완수가 xx동맹에서 주요 간부로 활약한다는 것, 자기도 xx동맹에서 활약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연방 ‘동지규합’이니 ‘동지획득’이니 하는 따위의 술어를 사용해 가며 유보화에게 자기와 같은 노선을 견도록 강요하는 것이었다.

도영혜가 김영서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한다고 동맹과업을 책동하던 여학교 때의 일이 눈 앞에 떠올랐다. 그때의 도영혜도 이와 비슷했던 것이다.

유보화는 어쩐지 쓸쓸해졌다. 모두가 멀어져 가는 것만 같아서 견딜 수 없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감이 전신을 엄습해 왔다. 도영혜를 찾아온 일을 뉘우치기도 했다.²⁸⁾

“유선생 xxx 여사와 같은 분을 만나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런 분의 말씀을 좀체 들을 수 있나요? 우리 학교 졸업생이나 우리 학교에 오신다는 거죠. 우리 학교의 영광이지.”

유보화는 더 말을 못하고 xxx 여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서두르는 다른 선생들과 한 가지로 서둘렀다.

xxx 여사는 단에 올라서자마자,

“...작년 팔일오에 해방이 되어서 방방곡곡이 환희에 들끓고 무슨 당이니 무슨 회니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통에 좌다 우다, 싸움이 벌어지고 요인 암살사건이 생기는가 하면 테로단이 백주 가로를 횡행하고, 그 뿐인가요, 패방한 일제 군인 놈들이 팽개치고 간 남아빠진 무기를 밀친 삼아 열흘이 멀다 싶게 살인 강도 사건이 생기고...”

이런 투로 줄줄 내려 뿔었다.

누구나, 하는 소리요, 늘 듣는 소리건만 유보화는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간이 돌아들면서도 그 뉘두리를 들어야 하는 일이 서글프기까지 했다.²⁹⁾

해방 직후 유보화 외의 다른 여성들은 모두 정치 활동에 나섰다. 도영혜는 내연남인 공산주의자 성완수와 함께 좌익 조직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으며 반미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또한 친구 노차순은 우익 민족주의로 기울어져 반탁운동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애인을 갈아치운다. 그러나 해방 직후 유보화는 남편 이성배의 병과 죽음 그로 인한 생계 불안 등 가정사에 집중하느라 ‘정치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가정사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 그녀에게 있어 해방 직후의 사람들은 마치 집단 광기와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만 보인다. 유보화는 사람들이 자기 안의 낭만주의적 감상성을 이기지 못하고 흥분에 들떠 현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정치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활동에 대한 낭만주의적인 이해는 이처럼 정치에 대한 냉소로도 쉽게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기에 유보화는 도영혜에게 그 나이를 먹고도 아직까지 ‘철’이 안 났다고 비난한다. 대신 유보화는 다소 소외감이 느껴진다고 해도 이 상황에 거리를 두고 관망하면서 자신의 본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돌보는 데에만 최선을 다할 뿐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

28) 위의 책, 307쪽.

29) 327쪽.

야 하기에,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만 남성의 뒤에서 그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유보화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싶다는 허영심과 공명심으로 정치 활동에 나서는 여성들과 달리, 자기과시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가정을 돌보는 데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이란 친일 부역자들이 ‘변절자’이자 ‘매국노’ 등과 같은 사회적 낙인을 부여받게 된 결정적 계기로서, 사회적 위신이 추락하게 된 사건이자 수치스러운 존재로 취급당하기 시작한 결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녹색의 문>>에서 이는 아무리 유보화가 당대 여성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부덕을 지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서가 유보화를 더 이상 결혼 상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영서는 물적 지배를 비롯해 상징 지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모든 지배 권력의 인적 구현으로서, 그가 선택하는 여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으로 인정받은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유보화는 도영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여성들과 비교해보아도 외모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가장 빼어난 여성으로서 한때 김영서의 ‘선택’을 받기도 했던 이었다. 그러나 귀환한 김영서는 자신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대신 김영서는 자신의 권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집안의 여성인 한길례와 선을 본다. 그런 김영서에게 다른 남성과 결혼한 적이 있으며 가진 것 없는 유보화는 이제 ‘지나간’ 인연일 뿐이다. 최정희는 해방 이후 친일 부역자의 사회적 위신 하락의 순간을 이처럼 유보화의 내적 자질에 걸맞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순간으로 그려낸다. 그런데 유보화는 바로 이 순간부터 김영서의 아들 승국에게 모성애를 쏟기 시작한다.

승국은 차츰 회복되어 갔다. 유보화의 지극한 정성이 미쳤던 것이다. 승국은 살이 오르면서 점점 더 김영서의 모습을 닮아 가는 것이었다. 유보화는 점점 더 김영서를 닮아 가는 승국의 모습을 보는 일이 즐거웠고 또 괴로웠다. 그러나 괴로운 것도 역시 즐거움에 속하는 일이라고 유보화는 생각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에도 대문간에서 유보화는 승국을 불렀다.

“승국아.”

하고 부르면 승국은 언제나 의젓한 걸음걸이로 마주 나오는 것이었다.

“어쩐, 승국인 어른 같아. 승국인 어른이야.”

유보화는 번번히 같은 말을 지껄이며 승국을 와락 껴안았다. 어른이란 곧 김영서를 말함이었다. 승국은 걸음걸이까지도 김영서를 닮아 가는 것이었다.

유보화는 승국에게 곤색 와이셔츠에 흰 바지를 해 입혔다. 곤색 와이셔츠와 흰 바지는 김영서가 잘 입던 옷이었다. 잘 입던 옷이라기보다 김영서와 유보화의 사랑이 고조에 달했을 때 김영서가 입었던 옷이었다.³⁰⁾

유보화는 1946년이 넘어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탄압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도영혜가 경찰에 쫓기면서 숨어 다니게 되자 도영혜를 대신하여 승국을 돌봐주었다. 그런데 김영서가 다른 여성과 결혼하려고 애쓰고 있음을 똑똑히 확인한 이후부터 승국이에 대한 유보화의 애정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당시 도영혜는 내연남이었던 공산주의자 성완수가 혼자 월북하자 또 다른 보호자를 찾아 고위 관료의 첩이 된 상태였다. 그런 도영혜에게 승국이는 걸리적이거리는 짐과 같은 존재였는데, 유보화는 자신이 이제부터 승국이를 책임지고 맡아 기르겠다고 얘기한다. 왜냐하면 승국이는 자신이 김영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30) 위의 책, 369쪽.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유보화는 승국이를 돌보면서 김영서와 자신이 연애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다. 이 시기는 유보화가 시도때도 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제 얼굴은 지금 참 고와요.”라고 행복해했던 시기였다. 김영서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지배문화의 규범에 가장 부합한 상태에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유보화에게 있어 김영서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 즉 지배문화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가치가 부정당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격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인간적 품위와 가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는 한 유보화는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유보화는 이제 다른 여성과 결혼할 김영서 대신 김영서의 아들인 승국이에게라도 애정을 쏟는다. 유보화는 승국이에 대한 모성애를 통해 여전히 자신이야말로 여전히 김영서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짝이라는 믿음 즉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존중과 대우를 받아 마땅한 가치가 있는 이라는 믿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4. 진정한 변절자로서 남성

사라 아메드는 국가란 스스로를 규범적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국가의 타자들로 하여금 국가에 대한 동화 욕망을 품게 만드는데, 이때 국가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타자들의 동화 욕망은 여러 감정 중에서도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발현됨을 짚어내 바 있다.³¹⁾ <<녹색의 문>>에서 유보화와 도영혜가 김영서를 사랑해마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타자들의 국가에 대한 동화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라 아메드는 타자가 국가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사랑을 통해 수치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타자는 항상 모순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얘기한다. “사랑을 되돌려주는 일은 그가 규범적이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국가의 규범적 이상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면 할수록 타자는 자신이 국가의 규범적 이상에 부응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³²⁾

<<녹색의 문>>에서도 이와 같은 타자의 모순이 그대로 나타난다. 부역자의 입장에서 김영서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부역이란 지배문화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변절’로서 비도덕적인 일임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김영서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자신이 지배문화에서 일탈한 부역자라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녹색의 문>>에서는 김영서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표현되는 만큼이나 김영서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표출된다. 김영서에 대한 변함 없는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부역자들은 동시에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낀다.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없는 이들에게 있어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 이에 최정희는 부역자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김영서에 대한 반감으로 바꾸어낸다. 부역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는 지배 권력이야말로 비도덕적임을 폭로함으로써 부역자로서 느끼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상쇄하는 것이다. <<녹색의 문>>에서 지배 권력의 비도덕성에 대한 폭로는 김영서의 성적 전횡에 대한 고발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영서는 도영혜와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 정조 이데올로기가 강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은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과

31)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98쪽.

32) 위의 책, 236-237쪽.

결혼하지 않는 이상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 이에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있어 암묵적으로 결혼을 전제로 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영서는 도영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도영혜를 ‘개 몰 듯’ 내쫓았다. 그는 도영혜라는 성적 대상을 통해 ‘재미’만을 취하고 싶었을 뿐이지 그에 따른 책임까지 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가 성관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여성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성인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일은 생기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그로 인해 도영혜는 평생을 ‘미혼모’라는 낙인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간다. 유보화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또한 김영서가 유보화에게 약속을 해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일부부터였다. 김영서는 유보화를 분명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학병으로 징집당할 상황에서 유보화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그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자 유보화에게 연락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연락을 주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여성과의 사랑이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켜나가야 할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다. 김영서는 여성과의 관계가 버겁게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이전에 자신이 그 여성에게 어떠한 사랑의 말을 속삭였든 어떠한 긴한 약속을 했든 간에 그 관계를 언제든 끊어버릴 수 있는 이이다. 그래서 김영서는 학병 징집이라는 위급 상황에 처하자 자기 살 길을 찾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유보화를 ‘뒤틀’ 것으로 둘 수 있었다. 유보화 또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도 줄 수 없는 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김영서는 유보화와의 관계에 대한 책임 또한 가볍게 무시할 수 있었다.

<<녹색의 문>>에서 김영서라는 남성은 당시 대한민국의 지배 권력 및 그 도덕적 정당성을 상징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김영서의 성적 전횡에 대한 이와 같은 고발은 곧 대한민국에 대한 비판과도 같다. 김영서와 같은 학병 출신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다른 세대의 지식인들과 달리 일제 시기 동안 친일하지 않은 ‘깨끗한’ 이들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상징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지배문화는 이들의 정치적 순결성을 근거로 부역자들을 더러운 변절자들과 비교 비난했던 것인데, 최정희는 그들 또한 더러운 ‘변절’을 일삼은 이들임을 폭로하는 것으로써 부역자에 대한 비난에 맞선다. 최정희는 지배 권력이 곧 가부장적 남성들의 권력임을 의식하고 남성들이 여성과 맺은 성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고 도리어 다른 여성들을 찾아다니며 성적 관계를 맺는 행태를 통해 지배 권력 또한 ‘변절’을 운운할 자격이 없음을 얘기하고자 한다.

또한 오히려 지조를 지킨 것은 유보화와 도영혜 같은 부역자 여성들이었음을 보여준다. 유보화는 김영서를 굳게 믿었기에 자신이 김영서에게 ‘차였다’는 사실도 눈치 채지 못하고 줄곧 김영서만을 기다리면서 군수 아들과의 결혼도 물리쳤다. 또한 이성배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검은 옷만을 입고 살면서 김영서에 대한 지조를 지켰다. 도영혜 또한 남성에게 버림받아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의탁했던 것일 뿐이지, 자신을 거두어준 남성에게는 항상 최선을 다했다. “우리 여자들은 모두 열녀입니다. 창부나 갈보더라도 열녀의 혼은 갓추구 있습니다.”라는 한 여성 인물의 말처럼, 지배 권력이 ‘변절자’라고 비난하는 부역자 여성들이야말로 남성에게 대한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다.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은 가부장제 하에서 남성의 성적 권력 그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은 비판은 유보화가 아닌 도영혜를 통해 행해지는데, 도영혜는 유보화와 달리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유보화처럼 남성/지배권력/가부장제에 대해 조심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녹색의 문>>이 독자에게 주는 재미와 쾌감은 다른 무엇보다도 도영혜의 목소리를 통해 나오는 남성 권력에 대한 비판이 통렬하다는 데 있다.

진실로 개만도 못한 년임을 알고 있다. 김영서에게 개만도 못하게 덜미를 잡혀 동맹일 치우던 날부터 몽똥어리는 개만도 못한 년이 되고 말았다. **거쳐간 모든 남자들은 김영서가 덜미를 잡아 동맹일 치듯 동맹일 쳐 버리기가 일쑤였다.** 그 방법이 다르달 뿐이지 어느 남자나 똑같이 개만도 못하게 동맹일 치고 가 버렸다. 동맹일 치우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原因)은 저놈의 자식 때문이었다. 승국이란 놈 때문이었다. 저놈의 증거물(證據物) 때문이었다. 저놈의 증거물만 없었더라면 도영혜도 일부중사를 했을 것이고 요조숙녀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예구 원통해라. 예구 분해라-33)

“... 그렇지만 김영서가, 김영서가 날 가만 내버려 뒀더라 저놈의 자식은 안 낳을 게 아니냐 말이다. 침부터 개 끌 듯 끌어내다 팽가쳐더라 저놈의 자식을 안 낳을 거 아니냐 말이다. 김영서 그놈이 내가 들어갔을 때 왜 가만 내버려두지 못했냐 말이다. 왜 제 할 짓을 다 하구 나서야 내다 팽가치느냐 말이다. **김영서뿐이 아니다. 남자란 죄다 그렇더라.** 죄다 제 할 짓을 하구 나선 팽가쳐 버리더라. 난 그놈의 방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건 생각지두 않았어. 잠 자는 김영서를 맘 놓구 실컷 보구만 있으려고 했던 했던 거야. ...”34)

“김영서가 그럴 의사가 있구 없구 보다 언니 의사가 어떠냐 말이에요.”

“나야 글썽 세 다리 네 다리 건넌 왔지만 아직 그 녀석을 못 잊구 있지. 그렇지만 내가 못 잊는 게 문제냐. 그 자식의 의사 여하에 따를 일이지.”

“딴 문제 다 덮어 놓더라두 승국일 생각해선 그럭하는게 나을 테니까 말이에요.”

“승국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문제가 있더라구 해두 그 자식이 말을 들어 주겠느냐 말이다. 말쑥한 숯계집엘 집어 삼키구도 시침을 뚝 떼구 온갖 짓을 다 하는 자식이 이제 세 다리 네 다리 건넌 년을 받아 들일 일가 있겠냐? 장히 청교돈 척하지... 흥. 그래 가지구도 또 한길렌가 뭔가 하는 솜 처녀하구 미아일 하는 것만 보지. **사내들이란 뻔뻔스럽기 짝 없는 것들이야.** 저희 새끼들은 별별 짓을 다 하다가도 여자가 좀 어쩔 트집을 잡아 가지구 지랄이거든. 더러워서... 원.”35)

도영혜는 여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김영서만의 특징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존재의 본성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한다. 도영혜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자신과 성적 관계를 맺은 여성에게 이기심과 비열함을 보이지 않는 남성은 아무도 없다고 단언한다. 도영혜의 전남편 홍찬구는 김영서와 달리 여자 말과 부모 말을 잘 따르고 대장부 기질도 없는 체제순응적인 이 그래서 친일도 하는 이이다. 그래서 도영혜는 홍찬구가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도영혜는 그가 ‘남자’ 같지 않다는 데 희망을 걸었다. 도영혜는 자신이 김영서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홍찬구를 보면서 홍찬구는 김영서 같은 남성과 ‘다르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홍찬구 또한 도영혜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김영서의 아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가차없이 도영혜를 버렸다. 홍찬구 또한 사실 도영혜가 ‘정조’를 잃었음을 단 한 번도 관용한 적이 없었다. 홍찬구는 다만 도영혜가 ‘정조’를 잃었다는 사실이 겉으로 표가 나지 않는 한 모른 척하며 덮어두었을 뿐이었다. 공산주의자 성완수도 여성과의 신의를 지키지 않고 남성으로서의 성적 권력을 비열하게 행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해방 전부터 도영혜와 연인 관계를 맺어왔던 성완수는 해방 후 도영혜와 함께 공산주의 조직 활동을 했다. 그러나 그 또한 정치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자기 한 몸만을 챙기며 도영혜에게 단 한 마디 말도

33) 위의 책, 208쪽.

34) 위의 책, 209쪽.

35) 위의 책, 375쪽.

없이 혼자 월복했다. 친일을 하든 우파 민족주의자이든 좌파 사회주의자이든 어떤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던 사회 체제에 저항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결국 남자란 본질적으로 여성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손해로 돌아올 것 같은 상황에서는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내팽개쳐버리는 존재라는 점에서 똑같이 이기적이고 비열하다.

<<녹색의 문>>에서 유보화와 도영혜가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대조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유보화와 도영혜 사이에 연대감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남성의 성적 권력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의한 것이었다. 최정희는 친일 부역자 유보화의 부덕을 강조하기 위해 좌익 부역자 도영혜를 타자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동시에 남성의 성적 전횡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로서 도영혜를 연민하고 동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연민과 동정을 유보화를 통해 표현한다. 유보화 또한 이성배가 ‘강간’이라는 방식으로 행사한 남성의 성적 권력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도영혜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유보화는 “애 보화야, 내가 저것 때때 오늘 날 온갖 수난을 다 당하구 있는데 너까진 그런 태돌 취함 난 어쩔란 말이나. 김영서의 아일 난 도영혜만 왜 수난을 말아야 한다더냐. 아일 낳게 한 김영선 아무 일 없이 제 할 짓을 다하하는데 왜 나만 번번히 죽을 고패를 겪어야 한다더냐.”라는 도영혜의 말을 충분히 수긍한다. 그래서 “여자의 수난(受難)은 남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김영서에게 버림 받은 도영혜를 가엾게 여긴다. 도영혜 또한 유보화에게 강한 연대감을 갖는다. 도영혜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미혼모’로 사는 불행이 무엇인지 뼈가 저릴 정도로 잘 알기에 유보화가 이성배에게 욕을 당하고 임신했을 때 어떻게든 유보화를 설득하여 이성배와 결혼하도록 했다. 도영혜는 친자매 이상으로 물심양면으로 유보화를 도왔다.

도영혜에 대한 유보화의 연대감은 <<녹색의 문>> 전체 서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보화는 김영서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방임하면서 천박하게 살아온 도영혜와 달리 끝까지 김영서에 대한 사랑을 유지해온 인물이다. 유보화는 도영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인생이 김영서의 배신으로 인해 ‘꼬이기’ 시작했음을 내심 느끼면서도 이를 의식의 차원에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김영서에 대한 사랑은 자신을 정화해주고 제지해줄 도덕에 대한 추구와도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김영서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란 도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내면이 비어버린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이다. 그래서 유보화는 도영혜가 김영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버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할 때마다 오히려 잘못은 도영혜에게 있다고 김영서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유보화는 해방 직후 조선으로 귀환한 김영서가 유보화를 찾는 대신 ‘처녀’와 결혼하려고 애쓰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김영서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결국 유보화 또한 김영서에게 자신이 배신당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내 아들? 내 아들인지 아닌지 알 게 뭐람.”

“왜 이러세요? 당신의 눈을 닦았고 당신의 코, 입, 웃는 것까지두 쪽 뺐어요.”

“그런 얘기 그만 두고 춤이나 춥시다.”

김영서는 발을 옮겨 놓았다. 유보화는 눈 앞이 아찔해왔다.

“그만 추겠어요.”

“왜?”

“쓰러질 것 같아요.”

“노차순인 스포츠 맨 비슷한 남자하구 얼렸더군.”

김영서가 화제를 돌렸다.

“스포츠맨이 아니에요. 문사라고요.”

“문산 그만 뒀다던데. 피죄죄해서. 이번엔 정치가라던데, 허허허. 자주 갈아 대는 모양이지?”

“남의 걱정 말구 다 각기 자기를 살피도록 하십시다.”

“네 잘 알았습니다.”³⁶⁾

앞서 언급했듯이, 유보화는 자신이 김영서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되자 김영서의 아들 승국에게 대신 애정을 쏟기 시작했다. 유보화는 승국을 통해 어떻게든 김영서와 자신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보화는 김영서가 맞선을 보는 댄스홀까지 쫓아가 김영서와 춤을 추면서 도영혜가 김영서의 아들을 낳아 길러왔음을 말해 준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김영서의 결혼을 말릴 수 있기를 바란 것인데, 그러나 김영서는 승국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단 번에 부정한다. 이 순간에 이르러서야 유보화는 비로소 자신과 김영서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전무함을 인정한다. 김영서와의 관계 회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유보화는 김영서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영서는 자신이 생각했던 고결하고 아름다운 청년이 아니다. 다만 민족주의나 반공주의를 무기로 지배 권력을 잡으려고 애쓰는 능글능글한 속물일 뿐이다.³⁷⁾ 유보화는 김영서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게 되자 드디어 도영혜의 편에 서서 김영서와 맞선다.

도영혜씨는 남자—사랑하는 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죽으라면 죽기라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완수도 가 버렸읍니다. 그가 월북할 때 도영혜씨 몰래 가 버렸어요. 헌신짝 버리 듯 버리고 가 버렸어요. 그가 가 버린 뒤에 도영혜씨가 얼마나 당황해 했으며, 공포에 떨고 있는 걸 제가 목격했어요. 성완수를 원망하던 걸 제가 들었어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모씨와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존경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그늘 밑에 좀 숨어 보자는 마음에서 동거하게 된 겁니다. 집까지 빼앗기고 어린 건 식모한테 뺄겨 놓고 이리 저리 숨어 다니기가 고통스러워서 취해진 결과입니다. 그 이외엔 아무것도 없읍니다. 성완수와의 연락이란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그는 지금 백지입니다. 성완수를 따라 일하던 일까지도 벌써 잊어 버리고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성완수와의 교섭이 있다는 말은 오로지 검사의 모략입니다. 도영혜씨 자신의 말을 빈다면 여자는 주의 사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상대되는 남자의 주의 사상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는 어느 날 밤 저의 집에서 밤을 새면서 김영서하고 살았더라면 자기는 민주주의자가 되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진실입니다. 정말 김영서씨가 그를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좋은 아내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선량한 백성으로서 살아 왔을 겁니다. 도영혜씨의 오늘날을 이끌어온 사람은 저기 앉아 도영혜씨에게 죄를 주려고 애를 뺏뺏 쓰는 김영서씨입니다. 산 증거물, 명백한 입증물이 바로 저기 앉아 있습니다.”

유보화는 몸을 책 돌려 방청석에 멀뚱멀뚱 목을 빼고 앉아 앞을 내다보는 승국을 손질했다.

“저 아이가 바로 김영서씨의 아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유보화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유보화가 깨어났을 땐 전등이 켜 있는 자기 방에 누워 있었고 물수건을 얹은 머리를 승국이 짚어 주고 있었다.³⁸⁾

36) 위의 책, 391-392쪽.

37) <<녹색의 문>>에서 댄스홀은 해방 직후 조선총독부의 사주에 의해 친일파의 자본으로 세워진 국제문화사라는 댄스홀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댄스홀은 미군에게 위락시설을 제공하겠다는 명분으로 세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댄스홀을 세운 것은 친일정부 수립을 위한 공작 및 미군에 대한 정보 확보 등을 위해서였다. (정병준, <<1945년 해방 직후사 - 현대 한국의 원형>>, 돌베개, 2023, 183쪽.) 김영서가 댄스홀에 다닌다는 것은 그의 우익 민족주의가 도덕적인 진정성이 없으며 다만 명목상의 불과한 것임을 의미한다.

38) 최정희, 앞의 책, 403쪽.

김영서는 도영혜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과오’를 은폐하기 위해 도영혜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이를 위해 김영서는 대한민국의 반공주의를 이용하여 간첩 사건을 조작한다. 김영서는 법정에서 도영혜가 공산주의자와 은밀히 내통하면서 “민족 운명”을 위협했다고 얘기하면서 “국가보안법 제 이조 이항”에 근거하여 십오년 형을 구형한다. 이 순간 유보화는 김영서에 맞서 도영혜를 변호한다. 유보화는 도영혜가 공산주의자를 내연남으로 두고 좌익 조직 활동을 했던 것은 그녀 자신이 투철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그 남성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고 항변한다. 또한 유보화는 도영혜의 부역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김영서에게 있다고 얘기한다. 유보화는 김영서가 도영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영혜가 공산주의자 성완수와 내연 관계를 맺는 등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얘기한다. 도영혜의 부역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만약 김영서가 도영혜와의 성적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도영혜는 분명 “좋은 아내”이자 “좋은 어머니로서 선량한 백성”으로 살았을 것이며, “민주주의자”가 되었지 “공산주의자”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유보화의 이와 같은 변론으로 도영혜의 부역이 어느 정도 참작되어 도영혜의 형은 15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유보화의 주장은 여성의 종속적 위치를 근거로 여성의 부역 책임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자신을 지배하는 남성의 영향으로 정치적 사상을 지니는 종속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여성이 특정 정치적 사상을 지니고 부역에 나선 책임은 그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보화는 여성의 부역 책임을 남성/지배권력/대한민국에게 돌린다. 여성의 정치적 사상이 그 여성을 지배하는 남성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이 특정 정치적 사상을 고수하지 않은 것은 그 여성을 지배하지 못한 남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제대로 힘을 가지고 여성을 자신에게 종속시켰다면 여성은 다른 정치체에 부역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여성의 부역 책임은 대한민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와 같은 여성의 부역 책임에 대한 주장에는 모순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은 종속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행위주체성을 발휘할 여지 또한 전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종속적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대한 자율성이 남아 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여성이 남성에 대한 종속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남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 남성이 하는 활동을 자신도 따라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영혜의 경우처럼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이 여성으로 하여금 부역에 더욱 쉽게 가담하게 만들 수는 있다. 이 점에서 도영혜의 경우 다른 부역자들과 똑같은 강도의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역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한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라는 점에서 부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이 져야 하며 그 책임을 면제받거나 가부장제/지배권력/대한민국에 전가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서사의 결말은 최정희가 <<녹색의 문>>에서 보여준 남성의 성적 권력에 대한 비판 및 이에 근거한 대한민국의 지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결국 여성의 부역 책임에 대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용되는 데 그쳤음을 보여준다. 최정희는 여성이 가부장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한 피해의 고통으로부터 다른 대안적인 윤리를 상상하는 대신,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통해 부역에 대한 책임

을 면제하고 그 책임을 구조나 상황에 전가하는 데 집중한다. 이 점에서 이 소설이 보여주는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이에 기반한 대한민국에 대한 저항감은 지배 권력에 대한 인정 욕망 및 지배문화에 편입하고자 한다는 동화 욕망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가부장제/대한민국에 대한 비판 또한 부역자로서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녹색의 문>>에서 지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이에 대한 '저항'은 서로 이질감 없이 공존할 수 있게 된다.

5. 결론

추후 보충 예정

참고 문헌

1. 일차 자료

최정희, <<녹색의 문>>, 푸른사상사, 2026.

2. 논문

강정구, <친일과 청산의 좌절: 그 원인과 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 27, 한국사회학회, 1993, 285-289

공임순, <최정희의 해방 전/후와 '부역'의 젠더 정치>, <<여성문학연구>> 46, 2019, 한국여성문학학회, 24-27쪽.

김복순, <소녀의 탄생과 반공주의 서사의 계보 - 최정희의 <<녹색의 문>>을 중심으로 ->, <<한국근대문학연구>> 9(2), 한국근대문학회, 2008.

김성보, <전후 한국 반공주의의 균열과 전환>, <<역사와 실학>> 62, 역사실학회, 2017, 200-207쪽;

김정숙, <최정희의 해방기 소설과 <<녹색의 문>>에 나타난 현실 인식의 변화>,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 김기진, 백철의 문단회고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나보령, <부역작가도, 중군작가도 아닌>,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262-268쪽.

박죽심, <최정희 문학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103-121쪽.

서영인,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 - 최정희 친일문학의 내적 동인 연구>, <<현대소설연구>> 25, 2005, 227쪽.

이상경, <일제 말기의 여성 동원과 '군국(軍國)의 어머니'>, <<페미니즘 연구>> 2, 한국여성연구소, 2002, 205쪽.

이하나, <1950~60년대 반공주의 담론과 감성 정치>, <<사회와 역사>> 95, 한국사회사학회, 2021, 207-209쪽.

정희진, <여성에 대한 폭력과 미투 운동>, 권김현영 외, <<미투의 정치학>>, 교양인, 2019, 90쪽 참조.

최정아, <최정희의 <녹색의 문>에 나타난 여성 정체성 탐구 양상>, <<현대소설연구>> 44, 한국현대소설학회, 2010.

허윤, <기억의 탈역사화와 사이의 정치학 : 최정희의 <<녹색의 문>> 연작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허은, <냉전시대 남북 분단국가의 문화정체성 모색과 '냉전 민족주의'>, <<한국사학보>> 43, 고려사학회, 2011, 209-238쪽;

황수진, <최정희론 - <<녹색의 문>>과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21.22, 건국대국어국문학연구회, 1997.

3. 단행본

김건우,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2017, 12-36쪽.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371-439쪽.

- 서영은, <<최정희 전기소설 · 강물의 끝>>, 문학사상사, 1984, 83쪽.
서중석, <<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2005, 427-434쪽 참조.
이봉범, <<한국의 냉전문화사>>, 소명출판, 2023, 191-195쪽.
정병준, <<1945년 해방 직후사 - 현대 한국의 원형>>, 돌베개, 2023, 183쪽.
사라 아메드, 시우 율김,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298쪽.
케릴 페이트먼, 이충훈·유영근 율김,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2001, 16-38쪽.